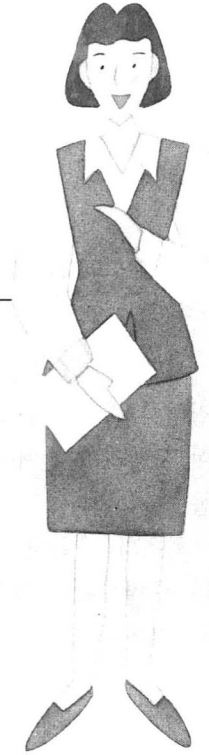


# 사무작업 . 작업환경을 고친다



전반적으로 산업의 발달과 함께 우리들의 생활환경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안전보건의 수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쾌적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요구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무환경의 쾌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 근로자 상호간의 이해와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다각적인 시점에서 직장의 쾌적화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근무환경을 스스로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각자의 노력들과 함께 '좋은 직장 만들기'가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勞勤衛生' 지에 수록된 내용을 연재로 소개한다.

## PART 1 변모하는 사무환경

**사** 무환경의 요소에는 공기환경, 온열 조건, 시각환경, 소리환경, 공간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수 년동안 이 사무환경의 변모는 예상을 훨씬 넘고 있으며, 현재 건물의 공조시설이나 환기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조명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무환경에 있어서 큰 변화는 거의 대부분 개인용 VDT단말기가 놓여지고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보관에 활용되고 있어 이제는 서류의 양이 많은 적든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중소기업에서는 늦은 속도로 진행되었지만 역시 그와 같이 변화해 갈 것이다. 결국 산업의 구별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사회로부터의 요구에 대

한 결과이며, 그 요구는 나아가서 지능집약형 작업이 정보집약형 작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 PART 2 쾌적한 작업을 향하여

그러면, 사무작업의 쾌적화란 어떤 것인가. 업무내용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현재, 종래의 작업방법으로부터 당연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작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를 눈앞에 두고 그 일을 추진하는 방법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우선 노동력 인구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의 직장 취업, 그것도 고도의 전문기술자로서 사무작업의 중심부로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국제

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산업전체가 그들과의 공동작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여성의 직장진출은 이제까지의 보조적 역할에서 그 이상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 경향은 점차 강해질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앞에 두고 취업가능인구의 감소는 그리 먼 일은 아닐 것 같다. 당연한 현상이지만 고령자의 생산작업 참여가 본격적으로 필요해지고, 의외로 빠른 시기에 노동현장에서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게 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중고년령층에 있어서도 청년층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노동력 인구구조의 커다란 변화로서, 이 점만으로도 종래의 작업관리로는 충분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가치관의 문제가 있다. 단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의 변화 뿐만이 아니라 중고년령층에도 또다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 근로자로서의 독립성이라고 생각된다. 산업노동계로서는 이 변화를 정당하게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활성화로 이어지는 커다란 요인일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변화는 작업의 고도정보화일 것이다.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수준은 놀랍지만 가까운 미래에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할 수 없는 작업형태의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내일을 바라보는 사무실에서의 중심 업무는 아무튼 창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국제경쟁 속의 산업환경은 비록 자원을 갖지 못한 나라에서조차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 처리방식 등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긴장의 연속에서 신기자재를 자유자재로 다뤄 나가게 될 것이며, 대단한 일이면서도 한편 이만큼 흥미를 주는 시대도 없다.

이처럼 노동력 인구의 구조적 변화,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가치관의 변화, 업무내용의 변화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쾌적한 사무실 만들기의 요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작업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노하우를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종래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모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내용의 변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차에 대하여 배려하는 일도 당연히 요구될 것이며, 아울러 개인들이 요구해오는 모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작업 그 자체의 변화에 대한 대응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역시 작업의 쾌적화이다. 즉 작업의 구성 및 방법이나 관리의 자유화 및 유연화를 지향해 가는 것이며, 작업환경의 쾌적화도 포함하여 불필요한 피로나 스트레스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기업사회에서의 최대의 스트레스 근원이 되는 인간관계의 개선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업무의 유연화 및 자유화는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문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 사용자 입장이든 작업자 입장이든 앞으로는 윤택함이 있는 새로운 작업형태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필**